



## 전문화된 시험연구원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원장 박계은  
02) 3415-8701

주위에서 어디에 근무하느냐고 물을 때 전자재시험 연구원에서 근무한다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재시험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물으면서, 아마 건재료(乾材料)를 취급하는 한약재를 연상하면서 건강에 좋은 약재를 조금 줄 수 없느냐고 요청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작명할 때 무척 많은 고심한 끝에 “建資材”로 결론을 냈으나 “建築資材” 또는 “建設材料”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우리 연구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축·토목과 교수들은 “건설자재시험연구원”으로 고쳐야 조직의 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건의하기도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을 만드는 것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주로 관장하는 산업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원료·제품을 만드는 분야가 전부 제조업이므로 어떤 점에서 좀 헛

갈리는 부문이 있다고도 한다.

지난 7~80년대 수출지상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고속도로, 항만, 통신, 공업단지, 철도 등을 건설하여 사회 간접시설분야인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 수출기반 조성에 건설업이 많은 기여를 하였고, 특히 70년대 오일쇼크 당시 해외 건설로 많은 외화를 벌여 들여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난을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설업이 크게 향상되어 고속도로와 댐 및 터널을 건설하고 교량을 축조하며 지하철을 놓고 대규모 빌딩을 짓기도 하여 우리나라는 별집을 쭉셔놓은 듯 전 국토가 개발되어 선진국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지난 90년대 한국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대구·서울지하철 공사시 폭발사고 등 갖가지 초대형 안전사고들이 잇따라 터져 전세계에 “해외토픽” 우선순위를 자리매김하



## 시 책 는 단

는 선례를 남겼고, 최근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도 내화·불연처리가 제대로 안된 내장재가 많이 사용되어 더욱 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말았다.

인천 씨랜드 화재참사로 자녀를 잃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반납하고 타국으로 이주까지 했다. 는 신문기사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일상화된 비리와 탈법속에서 부실 시공된 건축 구조물들이 붕괴돼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등 폐해가 빈번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설 시험검사소는 의뢰시험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시험을 하지 아니하여 시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 시험·연구에 종사하는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질의 향상 및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지어지고있는 건축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요소요소 소요되는 전자재의 품질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도로·교량·아파트 등 각종 건설구조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 새로 건설되는 각종 건축물도 정확한 설계와 우수한 건설회사가 일정품질수준이상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선진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의 탄생 계기도 안전한 건축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자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서 그 시발점을 찾고 있다.

이러한 품질향상은 최신 시험설비와 시험연구인력을 갖춘 연구원이 시험분석하고 품질수준을 측정 제

공할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험의 신뢰성과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시험연구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기술표준원에서는 각 분야에 전문화된 시험연구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건설재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국전자재시험 연구원은 민·관의 협력으로 700여종의 최신설비와 160여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어그나마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금년에는 Cone Calorimeter 등 화재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시험설비를 구입토록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삶의 질 향상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격화되고 품질높은 건설재료를 시험·연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 성적서 및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시험연구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